



전열 재정비 '태극전사'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4일(한국시각) 베이스캠프인 브라질 이구아수의 페드로 바소 경기장에서 진행된 회복훈련에서 선수들과 직접 몸을 부딪치며 미니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축구 16강 실낱 희망 도전

# 후회없는 경기 펼쳐라

■ 27일 한국-벨기에 최종전  
홍명보호 징크스 탈출  
세트피스 연속골 기대

홍명보호가 벨기에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을 통해 16강 진출의 실낱같은 희망 살리기에 도전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7일 오전 5시(한국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벨기에와 대회 조별리그 최종전을 펼친다.

러시아와의 1차전에서 1골씩 주고받고 비겨 승점 1을 확보한 홍명보호는 16강 진출의 갈림길에 있던 알제리와의 2차전에서 2-4로 완패하며 승점 추가에 실패, 조별리그 통과 전망을 어둡게 했다. 자력으로 16강 진출이 무산된 홍명보호(승점 1·골득실 -2)는 벨기에(승점 6·골득실 +2)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 같은 시간 치러지는 알제리(승점 3·골득실 1)-러시아(승점 1·골득실 -1)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승리가 우선이지만 홍명보호는 벨기에를 상대로 값진 기록 달성에도 도전한다.  
◇홍명보호 '벨기에 징크스 탈출'=한

2014브라질 월드컵 축구 한국-벨기에 예상 선발라인업  
6월 27일 오전 5시(한국시각) 쿠리치바-바이사다 경기장



국이 벨기에와 총 세 차례 맞붙어 1무2패에 그쳤다. 이 중 두 차례가 월드컵 무대(1무1패)에서 만났다.  
한국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벨기에와 처음 만나 0-2로 패했다. 1차전 패배로 기가 꺾인 한국은 내리 3연패를 당해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8년이 지난 1998년 프랑스 대회에서 한국은 벨기에와 조별리그 E조 3차전에서 재결투 했다. 이미 2패를 떠안은 가운데 차범근 감독이 중도 경질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한국은 벨기에와 최종전을 치러 선제골을 내렸지만 후반 26분 유상철의 극적인 동점골로 귀중한 승점 1을 쟁겼다. 조별리그에서 2무를 기록해 한국을 이겨야만 16강 진출이 가능했지만 유상철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한국과 함께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한국은 1999년 6월 벨기에를 국내로 불러들여 치른 친선전에서 1-2로 패해 세 차례 맞대결에서 1무2패의 부진에 빠졌다.  
15년 만에 벨기에와 격돌하는 한국은 공교롭게도 월드컵 무대에서 또 만났다.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벨기에에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한국은 벨기에를 크게 물리쳐야만 16강 고지를 넘을 수 있다. 벨기에를 이기면 '징크스 탈출'과 더불어 16강을 타진할 기회가 생긴다.

◇세트피스 연속 득점 기록 '이번에 무너지나'=한국은 지난 2010 남아공월드컵

까지 총 29골을 터트렸다. 알제리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손흥민(레버쿠젠)의 득점으로 역대 통산 30호골을 작성했다. 이후 구자철(마인츠)의 추가골로 31골째를 기록했다.

이 중 11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총 득점의 35%가 세트피스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허정무가 프리킥 상황에서 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2010년 남아공 대회까지 7회 연속 세트피스로 골을 넣었다. 더불어 직접 프리킥으로 골대에 골을 꽂은 것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개넨 슈터' 황보관의 장거리 프리킥 득점을 시작으로 2010년 남아공 대회 토고전에서 선보인 이천수(인천)의 프리킥 득점까지 6회 연속이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아직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게 아쉽다. 이 때문에 이번 벨기에전에서 세트피스 득점에 실패하면 선배들이 쌓아놓은 대기록이 중단되는 셈이다.  
홍명보호는 미국 마이애미 전지훈련과 브라질 이구아수 베이스캠프 훈련에서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을 가정한 세트피스 훈련을 집중적으로 펼쳐왔지만 러시아전은 물론 알제리전에서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세트피스 전문키커인 기성용(스완지시티)의 발끝이 더욱 매서워질 필요가 있다.

내일의 월드컵 (26일-한국시각)  
보스니아 F조 오전1시 이란  
나이지리아 F조 오전1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E조 오전5시 프랑스  
온두라스 E조 오전5시 스위스  
월드컵 스코어 보드  
네덜란드 2:0 칠레  
호주 0:3 스페인  
크로아티아 1:3 멕시코  
카메룬 1:4 브라질

### 홍명보 마지막 선택도 박주영?

씨늘한 축구팬 마음 돌리기  
김신욱 선발 출장 여부 관심

홍명보의 선택은 다시 박주영(아스널)에게로 향할까?

한국 축구대표팀은 27일 오전(한국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벨기에와 2014 브라질월드컵 H조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벼랑 끝에 매달린 홍명보호로서는 더 몰라설 공간조차 없는 일전이다. 비기거나 지면 그대로 '끝'이다. 이겨도 '경우의 수'를 따진 뒤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

승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던지는 플레이로 씨늘하게 돌아선 축구팬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홍 감독이 지난 러시아, 알제리전에서 가장 부진한 포지션으로 지목된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에 누구를 세울지가 조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전방에선 박주영은 그간 큰 무대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려준 골잡이였다. 나이지리아와의 2010 남아공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프리킥 역전골을 터뜨려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끌었고, 2012 런던 올림픽 때는 일본과의 3~4위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다.

이런 박주영에 대한 홍 감독의 신뢰는 매우 두터웠다. 자신이 천명한 '소속팀 출전 선수 선발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면서까지 소속팀에서 벤치에도 앉지 못하던 박주영을 대표팀에 복귀시켰다. 박주영은 3월 그리스와의 평가전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부활하는 듯 했지만 이어진 튀니지, 가나전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의 부진은 월드컵 본선이 시작되자 더욱 깊어졌다.  
스트라이커 평가의 척도인 공격 포인트 면에서나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면에서나 박주영은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주영이 부진에 빠지면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배후 침투가 특기인 이근호(상주 상무)와 고공 플레이에 능한 김신욱(울산 현대)을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커' 역할을 부여받은 이근호는 이미 러시아전에서 골맛을 보며 득점 감각을 한껏 끌어올린 상태다. 알제리전에도 교체 출전해 구자철의 만회골을 어시스트,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김신욱은 알제리전에서 박주영과 교체 투입돼 태점 높은 헤딩 패스로 한국 공격의 활로를 뚫었다. 구자철의 만회골도 김신욱의 헤딩 패스가 기점이었다.

홍명보호는 앞선 두 경기에서 이렇다 할 공격 세부 전술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신욱이 긴 패스를 머리로 떨구어 손흥민(레버쿠젠) 등 빠른 동료들에게 찬스를 안기는 다소 단순한 공격 방식이 홍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일지도 모른다.



박주영



김신욱

### 한국 vs 벨기에 '진짜 붉은악마' 가린다

벨기에 100년 넘는 '원조'

한국은 30년전부터 사용

'한국 붉은악마·벨기에 붉은악마, 누가 먼저일까'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맞붙는 한국과 벨기에 축구대표팀의 별칭은 모두 붉은 악마다. 둘다 붉은 유니폼이 대표팀을 상징한다는 데에서 나온 별명이다. 그렇다면 '원조'는 어느 쪽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벨기에다. 벨기에가 붉은 악마로 불리지는 100년도 더 됐다. 벨기에에는 1906년 처음으로 붉은 악마라고 불렀다.

1904년 5월 첫 공식 경기를 치른 벨기에

는 대표팀 출범 2년 만에 연이은 승리로 자국 축구팬들을 흥분시켰다. 벨기에에는 1906년 한해에만 프랑스에 5-0으로 대승을 거두고 이어진 네덜란드와의 2차례 대결에서 5-0, 3-2로 이기며 거침없는 3연승을 질주했다.

당시 피에르 윌키어스라는 기자는 자국 대표팀의 3연승에 고무돼 대표팀을 '붉은 악마'라고 표현했다. 벨기에 대표팀의 유니폼 상·하의가 모두 붉은색인 데에서 착안한 별명이었다.

한국의 붉은 악마는 이보다 한참 뒤에 탄생했다. 한국이 처음 붉은 악마로 불린 때는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4강에 오르는 파

란을 일으켰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스코틀랜드에 0-2로 질 때만 해도 한국의 4강 신화를 예측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2차전과 3차전에서 멕시코와 호주를 연달아 2-1로 물리치고 8강에 올랐다. 8강에서는 연장 접전 끝에 우루과이를 2-1로 꺾었다. 4강에서 브라질에 1-2 역전패하며 한국의 돌풍은 멈췄지만 3-4위전에서 폴란드와 연장전까지 벌이는 끝에 1-2로 지는 등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해외 언론들은 붉은 유니폼을 입은 작은 동양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중형무진 누비는 데 놀라워하며 한국을 붉은 악마로 표현했다.

/연합뉴스